

‘시행령 수정’ 행정·입법 권한 충돌...정국 요동

박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與 지도부 곤혹...대응 주목
野 “입법부와 전쟁 선포” 반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를 지닌 채 그대로 정부로 이송될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최종 선택지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당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국회 사무처까지 “부당한 행정입법권 침해가 아니다”고 청와대 입장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은 하루종일 혼란과 갈등으로 들끓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 발언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일단 전문가 및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와 의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상 3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박 대통령이 3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3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사무처도 이날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내고 “상임위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가능하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혁신안 발표를 마친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나부터 내려 놓겠다” 총선 불출마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일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자부터 내려 놓고자 한다. 저는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위원장 외에 신망 있고 실력 있는 6명의 외부인

사와 당 내부에서 4명을 혁신위원으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인사로는 국회의원 1명, 기초단체장 1명, 원외 지역위원장 1명, 당직자 1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혁신, 공천혁신, 정치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며 “정당혁신 없이는 공천혁신도 불가능하다”고 강조, 정당혁신을 바탕으로 공천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어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없으며 희생 없이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며 “혁신위의 명칭을 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에 있다는 ‘당권재민(黨權在民) 혁신위’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농어촌 국회의원들 ‘인구비례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농민단체와 함께 심판 청구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1일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구 농어촌 지방 주민 지키기 의원모임’의 여야 국회의원 13명은 이날 농민단체 등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모임의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심판 청구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인구편차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개리맨더링’ 식의 선거구 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결정으로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구 25곳의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며, 이들 선거구를 다른 선거구에 합칠 경우 국회의원 한 명이 도저히 대표할 수 없는 기형적인 면적과 구조로 선거구가 재편된다는 것이다.

‘농어촌지방 주민 지키기 의원모임’은 새누리당 장운석·이철우·이한성·한기호·김종태, 황영철·박덕흠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윤석·김춘진·강동원·김승남·이개호·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진 토담집 칩거 손학규 전 대표 심경 토로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정치욕심 산 생활로 닦아내고 또 닦아낸다”

“가끔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정치욕심을 산 생활로 닦아내고 또 닦아낸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강진의 토담집에서 칩거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대표의 최근 심경이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난과 직전까지 몰리자 재등판 요청을 받아오던 손학규 전 대표가 지인들에게 밝힌 속내다.

손 전 대표는 지난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 비서관의 방문상 빈소가 차려진 광주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 측근이 1일 전했다.

손 전 대표는 “언론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보고 정치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는 마음이 간혹 곰팡이처럼 피어오를 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새정치민주연

합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정치를 다시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정치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당내 상황이 어려운 새정치민주연합과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정계 복귀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고, 앞으로 상당 시일 은퇴형 ‘토담집 생활’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손 전 대표는 이어 “저를 가까이에서 도와준 사람이나 지지해준 국민에게 고맙다고 표현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항상 죄스럽고 죄인처럼 생각된다”며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잘했다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 윤리심판원장에 안병욱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공동 위원장 강철규·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윤리심판원장에 안병욱(사진)가 톨리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또 정책정당 행보를 주도할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세균 전 대표가 공동으로 맡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과 오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각각 열어 임기가 만료된 강철규 의원의 후임으로 안 명예교수의 윤리심판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안 명예교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거쳐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데 기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에는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2·8 전당대회 때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기존의 당 윤리위원회를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 ‘최종심’인 윤리심판원으로 승격시



이와 함께 문 대표는 외부인사와 내부인사인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세균 전 대표를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발탁, 4·29 재보선 전제로 주축해진 ‘유능한 경제정당’ 행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강 전 위원장은 2012년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며 대선 때에는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고문을 지낸 인연이 있다. 정 전 대표는 실물경제에 밝은 기업가 출신으로, 당 대표와 원내 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지낸 ‘원조 경제통’으로 꼽힌다.

문 대표는 이번 인선에 이어 정무직 당직자 일괄사퇴에 따른 당직개편도 조만간 실시, 면모일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 ① 원서접수 : 2015. 6. 8(월) ~ 19(금)
- ② 전형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 ③ 합격자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신학연구학과(M.A.T.)	00
		유아교육학과(M.Ed.)	00
		음악학과(M.A.)	0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00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중,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